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교사계속교육 (Advanced Teacher's Education)

4.7(주)~6월9일(주) 10주동안

교회는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사들을 적능별로 교육하여 효과적으로 교사의 임무를 수행토록 돕기 위하여 '교사계속교육(Advanced Teacher's Education)'을 실시한다.

4.7(주)부터 6월9일(주)까지 매주일 오후 3시10분부터 4시30분까지 403호실에서 실시된다. 교육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일정	과목명	강사	참석대상
4월07일	교회학교 부장 사역 사례발표	오광환 집사	각부서 부장
4월14일	교회학교 부감 사역 사례발표	이은옥 권사	각부서부감
4월21일	교회학교 교사 조직 및 운영	송인권 집사	총무(부장·부감)
4월29일	교회학교 예산업무	오정수 장로	회계(부장·부감)
5월05일	교회학교 문서관리	이영기 장로	서기(부장·부감)
5월12일	서울교회 교육 기자재 운용 시스템	조철기 집사	총무·시설관리자
5월19일	은혜로운 찬양인도방법	청빙예정	각부서 찬양인도교사
5월26일	교회학교 찬양대 운영	윤영국 목사	찬양대 지휘자·반주자
6월02일	교회력에 따른 절기 교육	이상득 목사	부장·부감·총무
6월09일	학부모와 연계된 교회 교육사례	조대영 전도사	부장·부감·총무·교사

열린교회 프로그램 등록 안내

-금주로 모든 등록 종료-

교회가 성도와 이웃주민의 평생교육을 목표로 준비한 2002년도 전반기 열린교회 프로그램(11학기 서울 성경대학, 4학기 살롬 경료대학, 3학기 서울주부대학)이 지난주 모두 개강하여 은혜롭게 진행중이다. 총 10주간의 학사일정으로 7주 이상을 출석하면 수료증을 받게되는 열린교회 프로그램은 금주 중 모든 등록을 종료하게 된다.

여가시간의 활용과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은 금주 중에 모든 등록을 마쳐주길 바란다.

서울교회 남선교회 연합 체육대회

4월13일(토) 오후 1시 수도권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서울교회 7개 남선교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하는 남선교회 연합 체육대회(준비위원장 김광신 장로)가 오는 4월13일(토) 오후 1시 수도권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다. 이번의 체육대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선교회 회원간의 친목과 교제와 태신자 전도의 장으로 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배구, 족구, 발야구 등 3개 종목을 경기할 예정이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즐거운 자리로 푸짐한 상품도 준비한다고 전하며 많은 남선교회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하는 가족 한마당이 되도록 한다고 한다. 또한 편의를 위해 교회에서 수도권전기공업고등학교 까지 순회버스 운행도 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도한다.

실업인 선교회 특강 안내

-성인병 예방과 한방 치료-

실업인 선교회는 4월 11일(목요일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성인병 예방과 한방치료에 관한 특강 시간을 갖는다.

강사는 박동원 박사로 평소 건강관리와 성인병 예방, 신경통, 관절염, 스트레스의 한방치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실업인 선교회 회원이 아니라도 수강할 수 있다. 많은 참석바란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개역개정판 딤후 2장8~9)

Remember Jesus Christ, raised from the dead, descended from David. This is my gospel, for which I am suffering even to the point of being chained like a criminal. But God's word is not chained. (NIV 2 Ti 2:8~9)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시-

3월중 등록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의 시간이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있다. 새가족부 교사와 3월중 등록한 모든 새가족은 오늘 찬양예배에 함께 하여 함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지난 3월 우리에게 양육을 맡기신 새가족은 91명으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광수 강명수 강윤주 강제호 강주연 고은옥 구치규 권영준 김경미 김동봉 김민진 김상조 김선숙 김세현 김아영 김정은 김종무 김지윤 김지은 김태산 남경수 남송임 노영환 문옥일 박길수 박소현 박영숙 박은실 박한철 박현일 박희경 배옥남 백지훈 서기진 송영재 송인호 송지혜 신선주 우영기 유영희 유미숙 유복준 유영실 이교진 이명성 이명순 이삼원 이순복 이신원 이영구 이은경 이정현 이정희 이주영 이지미 이지은 이해원 이해경 임대균 임미경 임병우 임선이 임종열 임춘자 임충식 임혜림 장은영 전금수 정소영 정원희 정은선 정진만 정현지 조아라 조향실 주영광 주원순 진교인 차선민 최경자 최낙준 최명남 최문정 한승우 한영순 한정택 함정희 현희수 홍순석 홍정표 허진 (이상 91명 가나다 순)

† 4월 행사계획표 †

- 4.01~6.03 : 제2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4.02~4.04 : 제18회 군중목사 후보생 수련회
- 4.05(토) : 새가족부「한가족 축제」
- 4.07(주) : 새가족 환영회
교육위원회
- 4.13(토) : 남선교회 체육대회
- 4.14(주) : 전도위원회
- 4.20(토) : 육사세례식
- 4.21(주) : 교구위원회
교구찬양(9교구)
- 4.24(수) : 4월 학습, 세례식
- 4.28(주) : 남선교회 헌신예배·찬양위원회

이시아서 강해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

(이사야 59장 16 - 21절)



이종운 목사

하나님은 종을 보내시어 범죄 한 이스라엘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책망 받은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은 회개하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책망을 듣고 오히려 반발을 합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20절). 하나님께서는 일부 유대인들의 회개를 보시고 기뻐하시나 아직도 그 나라에 정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15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의로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은 그 넓으신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구원하길 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쫓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사 18:4).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할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자가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조용히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람도 없고 중재자도 없이 낮을 잃고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렘 14:9). 그리고 결국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어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16절). 이와 같이 인간 구원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있으므로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의도 없거니와 남을 구원할 이는 더더욱 없습니다. 인간 구원은 하나님 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어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지혜입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를 세우심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2. 여호와와는 자신을 무장한 전사로 비유하셨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으로 삼으시고"(17절).

하나님은 의로 이기신다는 의미에서 공의를 갑옷을 삼는다고 하십니다. 개역판 성경에서는 '의로 호심경을 삼는다고 했는데 호심경은 생명의 중심부인 가슴에 붙이는 갑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십니다. 이는 해할 자가 없다는 의미에서 자기 머리에 구원을 투구로 삼아 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풀어주시려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할 때 가만히 있거니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특별히 그들 중에서 회개하는 무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여오도록 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억울한 사정을 밝히시고 원수를 갚아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지저분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의와 불의를 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시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의미에서 열심을 입어 겹옷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항상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여호와를 대적할 병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그들을 짓밟은 원수들은 격멸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장하신 것 가운데는 공격용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갑옷을 입으시고, 투구를 쓰시고 겹옷은 입으셨는데 총이나 칼은 거기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의 불어 내시는 성령의 기운이 그에게 족하기 때문입니다(19절).

3.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위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18절).

하나님은 선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선민의 원수를 모두 징벌하십니다. 선민의 원수는 곧 여호와 자신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중요한 사역이 자식을 보호하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저들의 원수를 먼저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렵게 한만큼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다음에는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또 남을 판단한 것으로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원수에 대하여 혹자는 앞에 나오는 원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불신자를 말하고, 나중에 나오는 원수는 바벨론을 말하고, 섬들은 모든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너무 은유적인 해석이고 다만 이 단어들은 중복 강조법으로 보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불신앙의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이방인, 곧 불신자들에게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보복하십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임이로다"(19절).

여호와께서 열방 중에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징벌하신 결과로 서방과 동방에서, 그리고 남방과 북방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와 기운에게 몰려 급히 흐르는 유브라데 강물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은 이제 돌연히 임하시어 한편으로 심판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하십니다.

4.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2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특별히 그들 중에서 회개하는 무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여오도록 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호와와 적들이 징벌을 받고 이방인 가운데 회개한 자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올 때 구속자가 시온에 오시며, 이스라엘 중에 죄를 떠나 회개한 자들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한 구속자, 곧 메시아 아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21절).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과 세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렘 31:31-34)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주실 것으로 약속되었고(골 2:28), 이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에게 보내시어 영원토록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요 14:26).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가리키고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은 교회를 통해 성취됩니다.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히 함께 계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은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어 마침내는 교회를 이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 신앙과 우리의 나아갈 길



조대영 전도사(유아부 지도)

인간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 인간은 타락의 심연, 죽음의 밑바닥, 그리고 삶의 분열에 빠지게 되며 마침내 자신과 피조 세계를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고 말았다.

시간속의 인간은 교만으로 타락한 상태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소외된 상태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인간과 같이 있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의 시간을 역사 속에 기록하시면서 이를 이루셨다. 어거스틴은 이 사건보다 더 인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곳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매개로 하여 우리는 인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영생하시고 불변하시며 의로우시고 복되신 그분에게 올라 갈 수가 있다고 말한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며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매우 그럴듯한 이론을 교육하며 부활을 부정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지 않으시고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무덤 속에서 깨어났다는 기절설을 말한다. 그렇다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요 19:33-34) 기록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이 다른 빈 무덤에 달려가 착각을 하

였을 것이라는 다른 무덤 설은 증거가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에 무의미한 말이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부활의 거짓 소문을 퍼트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제자들이 이러한 거짓에 증인이 되어 죽음까지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어떤 학자들은 역사적 사건과 신앙의 사건을 구분하여 실제 부활 여부에 관계없이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학설을 말하고 있는데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고전 15:14)

현대는 순간적 쾌락의 추구, 변역 속의 빈익빈 부익부, 기계화와 조직화로 인한 소외와 단절, 가치관의 상실 등의 절망적 상황 속에 처하여 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매우 강력히 요청되는 일은 소망의 근거인 부활신앙을 고

취시키는 올바른 교육을 향한 열정이다. 부활신앙 교육의 내용은 현재 뿐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를 향한 희망의 근거를 제공하며 진정한 생명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을 담고 있다. 부활신앙 교육의 실천은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고난이라는 엄격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잘못된 질서와 고정관념을 깨뜨려 나가게 하고 마침내는 믿음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믿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부활의 경험을 자기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사도들의 본을 따라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이웃을 향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가르침과 이웃에 대한 봉사의 손길을 게을리 하지 말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사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열매는 이방인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고 후에 그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거하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교회는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속에서 발전하여 간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활의 열매를 성실히 맺어갈 수 있는 증인과 교육의 책임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겠다.

교역자가정을 찾아서 - 지혜영 전도사 가정 편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올해 환갑을 맞으신 지혜영 전도사님은 슬하에 따님 한 분(김마리아, 33)을 두고 계신다. 마리아씨는 두 아들 현기(6)와 윤기(5), 남편(김진우, 36, 미공무원, 정보계 통 컴퓨터 프로그래머)과 함께 현재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지전도사님은 잠원동에 있는 여동생 내외분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데, 동생 내외분의 자제들 역시 미국에서 수학 중이라 식구는 단출하게 어른만 셋이다.

지전도사님은 3년 전(1999년 1월 15일) 서울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줄곧 살롬 권사회와 권사회, 새가족부를 맡고 계신다. 또 주로 환자 심방을 하시며 부목사님들과 협력하여 교회 전체의 곳곳을 돌보고 계신 지전도사님은, 힘은 들지만 일하는 게 기쁨이요 보람이요 늘 감사하시다고 한다. 이는 젊은 교역자들의 대열 속에서 뜨거운 성령 체험과 한가족 같은 끊이지 않는 사랑에 빛을 쬐기에, 또한 빈틈없는 당회장 목사님 곁에서 보고 배우며 느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머니처럼 전도사님을 아끼고 깊이 사랑해주시는 노권사님들을 뵈면 때면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솟아오르

는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으시란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일할 시간이 꼭 그만큼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까우시다는 전도사님의 애창 찬송도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495장)이다. 즐겨 묵상하시는 말씀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시 116:12), "나의 나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로 이어진다.

나라 안팎이 어려울 때 교회건축을 한 서울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지켜보면서 오직 믿음과 비전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를 실감한 경험은 이즈음 새가족부를 통해 다시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다. 12주간의 성경공부 과정을 마치고 봉사부서로 옮겨가는 새신자들이 서울교회 성도로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어 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절로 감사가 터져 나오신다고. 감사할 제목은 이 뿐 아니다.

힘도 없고 주머니도, 건강도 여의치 않은 살롬 권사회 할머니들의 교회사랑, 하나님 사랑, 주의 종을 향한 사랑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산실이 되기 위해 분투하는 서울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이 가슴으로 본받아 지나야 할 귀감이 되어주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기에 늘 은혜를 받으신다고.

지전도사님의 기도제목은 이 모든 감사와 더불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이다. 전도사로서 걸어온 지난날이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우며 감사하고 또한 즐거웠기에, 일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날까지 가족들의 평안과 건강이 함께 허락되길 간절히 소원하신다. 미국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마리아씨와 설교통역을 하는 사위, 열심히 기도하시는 어머니(84)는 전도사님과 함께 살날을 고대하고 계시지만, 전도사님의 사역을 또한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기기에 이 또한 감사하시란다. 마지막으로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을 부탁드리자 전도사님은 특유의 인자한 목소리로 순종과 충성의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 혹시라도 신앙의 회의를 올 때, 개인적 환난이 올 때 기억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

"그러할 지라도 그것을 접어두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삶을 통해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엔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편집부 나소정)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서울교회 차량부에 봄이 찾아오고 있다. 아침 일찍부터 지하실로 지상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은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이고 온전한 섬김의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바쁜 중에도 경건회로 모여 말씀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질서와 화목한 주차를 위해 늘 고심하며 기도하는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차량부이다. 비록 빛은 들어오지 않고 매연 속에서 봉사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지하실에 봄꽃 2층이가 피었다.

1부에는 '김옥순 집사님' 2부에는 '김용희 집사님' 두 분이 들어오는 차마다 겸손히 인사하는 그 모습은 차량부의 꽃이라기 보다 온 교회의 꽃으로도 그 향기가 충분하다.

첫 시간부터 기쁘게 부드럽게 마음을 열게 하는 작은 천사의 모습이라고나 할까? 주일 첫 시간부터 찬양예배시간까지 빈 시간 없이 봉사하는 손길은 열정적인 믿음에서 지하실부터 8층 식당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봉사하시는 두 집사님입니다. 두 집사님께서 교회에 바램은 시간마다 여성주차위원들이 같이 봉사하시길 원하시어 좀더 증원되기를 바라며 기존 주차위원들도 너무 부족하여 안타깝다고 온 교회에 광고를 부탁하셨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열려있으니 차량부나 사무국에 찾아주시어 상담하시길 바란다. 모든 차량들은 주차장에 내려올 때 좀더 천천히 내려오고 교회의 질서와 화목에 협력해주시길 거듭 부탁하셨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헌신하시는 주차위원 여러분께 온 교회가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 오늘도 봉사하시

는 주차위원들의 땀과 기도와 열정이 언제 어디서나 교회의 구석구석 배어 축축한 사랑으로 적셔져 있을 것이다. (편집부 신동기)



1부예배 시간에 봉사하시는 김옥순 집사님



2부예배시간에 봉사하시는 김용희 집사님

2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지난 19학기에 비해 개강 첫날의 신규 등록자와 이수자의 등록율은 각각 50%와 35%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4월 1일 우리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원장 이종운 목사)의 제 2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개강 되었다.

1992년 3월 개강 이래 10년간 쉼 없이 계속되어온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21학기의 개강 첫날 270여명의 등록자가 있었다.

이는 작년의 봄학기인 19학기에 비해 개강 첫날의 등록자를 비교한다면 전체적으로 8%가 늘어 난 것이며 학기당 전체 등록자의 60~65% 정도가 개강 첫날 등록하였던 전례로 비추어 보아 2주차 내지는 3주차가 되면 21학기의 등록자는 450여명에 이를 것으로 한국교회 갱신 연구원은 내다보고 있다.

크고 작은 각종 목회 관련 세미나와 교계 및 각 교단의 행사들이 거의 대부분 3,4,5월에 집중되어 봄학기의 수강

자는 가을학기에 비해 20~30%정도는 등록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헌데 이번 21학기 개강 첫날의 등록자 현황에서는 같은 봄학기인 작년의 19학기에 비해 신규등록자는 약 50%, 이수자(재등록자)는 약 3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첫날의 등록현황만을 가지고 이번 학기 수료자들의 등록율이 감소할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수료자들의 등록율은 19학기에 비해 오히려 20%정도 감소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이번 2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봄학기라는 어려운 수강 여건임에도 신규등록자와 이수자(재등록자)의 등록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커다란 성과로 평가된다.

편집부(김시환)



몽골에서 온 편지

몽골을 사랑하시고 단기 선교를 계획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오시는 여러분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번 단기 선교에 동참하기를 결심하셨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짧은 단기선교 기간에 선교지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큰 포부를 갖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기 선교팀의 지나친 열정은 현지 선교인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간 많은 단기선교 팀들이 몽골을 다녀갔습니다. 대부분 좋은 사역들을 잘하여서 선교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 그러나 일부 단기 선교 팀들이 너무 뜨거워서 준비해온 전도지로 노방전도를 한다고 다니면서 몇 마디 배

운 몽골어로(실제로는 몽골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몽골어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땅 밟기 한다고 유적지에서나 마을 앞 어디서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 성가를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하는 등 주민들의 눈에 나는 일들을 하여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정부에 항의를 하였고, 그 결과 울란바타르 종교담당 책임자가 몽골 텔레비전에 나와서 공식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건 선교는 그 나라의 정서를 잘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곳 교회들은 대부분이 일년마다 정부로부터 허가 기간 연장을 받아야합니다. 그 때마다 지역사회 봉사를 열마나 하였나 하는 것이 기간 연장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기에 단기선교 팀들이 와서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가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지역사회

봉사를 하게되면 열린 마음의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서울교회에서 이 곳 몽골을 찾아오시어 선교하기로 결정하신 일을 매우 감사 드리며 무엇보다 지속적인 기도로 몽골 단기선교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몽고는 중국이 주변국가들을 격하하여 붙인 명칭이므로 반드시 국호를 몽골이라고 호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철 드림 (몽골 선교회서기)

사무엘의 어머니 처럼

(유치부 교사 · 학부모 초청세미나에 참석하고)

최인정(5교구)

따뜻한 봄기운에 감도는 지난 화요일,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는 유치부 부모와 교사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평소 믿는 자로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양육하고 교육함에 있어 영적 본분을 잃어버리고 일주일에 한번 유치부실에 아이들 맡겨두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라는 이종운 목사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를 더디 하고 말씀 읽기에

게으른 제 모습을 보고 아차 하는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부모의 언어습관과 말씨를 따라하듯 신앙도 부모의 영적 자세와 습관을 따라 성장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윗과 다니엘, 사무엘과 같은 자녀로 키우기 위해 부모인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에게 국어 수학을 가르치듯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세상의 꿈을 키워주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십시오"라는 목사의 당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7일(주일) 오후 4시 서울 중앙교회 목사 위임식에서 설교한다. 12일(금)서울강남노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이옥녀 권사 · 김훈집사 가정에서 제빵기와 방석을 기증했다.
- 개원: 안성현 집사 유숙인 집사(11교구) 가정 '남부 청술 학원 개원' 892-0057
- ☞ 금주의 식사제공: 교연무 집사 김정의 집사 (범사에 감사하며)
- ☞ 21학기 목회자세미나 식사제공: 신영식 집사 · 김신영 집사 가정
- ☞ 21학기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오정수 장로 · 이영희 권사 가정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국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1학기목회자세미나 · 성경대학 · 경로대학 · 주부대학을 위하여
2. 남선교회 연합회 체육대회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